

2차 세계대전에 영향 미친 디자이너와 에디터를 기리는 전시

페리앙, 잔느레, 프루베, 블랑송





1982년 파리 센느 가 rue de Seine에 문을 연 갤러리 다운타운 Laffanour Galerie Downtow은 여전히 같은 주소에서 장 푸르베 Jean Prouvé, 샬롯 페리앙 Charlotte Perriand, 세르주 무이 Serge Mouille를 포함한 20, 21세기 건축가와 디자이너 가구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40년 한 우물을 판 컬렉터 프랑수아 라파누의 특별한 시선으로 수집한 영감을 주는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파리에서 '미드 센추리 모던'에 대해서는 갤러리 파트릭 세긴 Galerie Patrick Seguin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이 시대 디자인의 열렬한 팬이라면 갤러리 다운타운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3월 파리 디자인 주간을 끼고 열리는 전시의 제목은 THE B.C.C STORY (1939-1952)다. 즉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해 디자이너 삼인방 샬롯 페리앙Charlotte Perriand, 피에르 잔느레Pierre Jeanneret, 장 프루베Jean Prouvé 와 그들을 이끈 에디터 조르주 블랑숑Georges Blanchon이 의기투합해 그르노블에 설립한 B.C.C.라는 이름의 조립식 건축물과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 관한 전시다. B.C.C.란 Beaujau Central de Construction의 약자로 ‘중앙건설본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쟁 후 재건을 목적으로 둔 그때의 시대성이 느껴지는 회사명이 재미있다. 당시 페리앙는 밀짚 안락의자, 밀짚으로 된 네 발 의자, 삼각형 받침대 테이블을 포함하여 여러 가구를 만들었는데 이 중 일부분이 B.C.C. 조립식 목조 주택 안을 채울 디자인에 사용된다. 또한 자신의 집에 놀을 알루미늄 서랍이 달린 ‘en forme’ 책상을 이때 디자인한다. 참고로 1939년에 만들어진 페리앙의 이 책상은 지난 아트큐리알Artcurial 경매에서 703,400유로에 판매되어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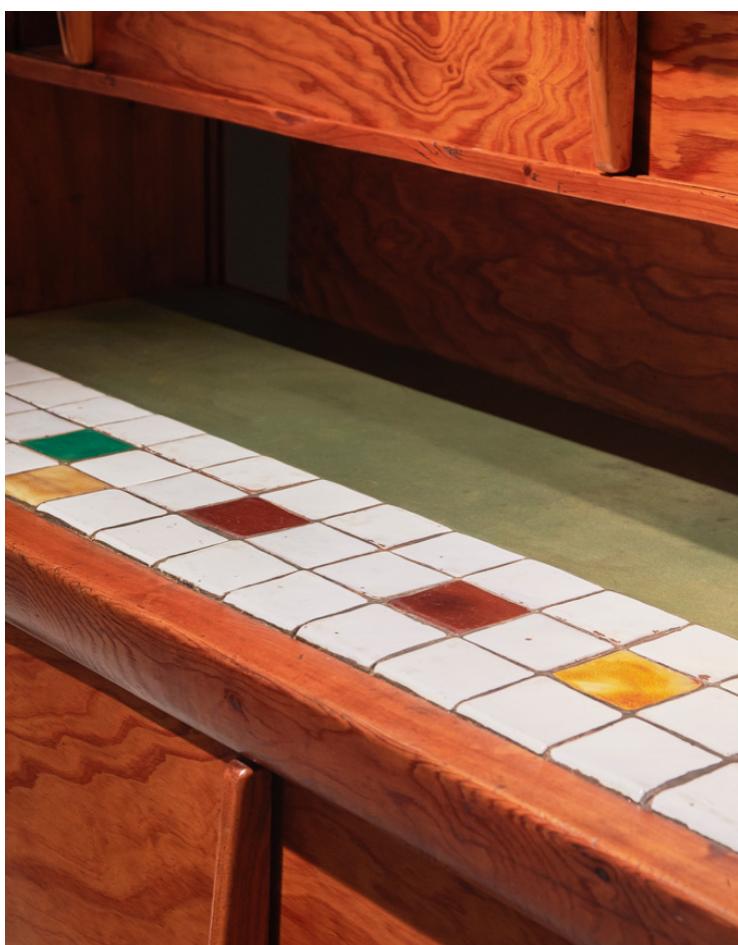
잔느레와 프루베 둘이 작업한 F 8×8 BCC 하우스를 보면 전쟁 시국의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든다. 장 프루베의 구조를 사용하여 가벼움의 특성을 끌어낸 난민을 위한 임시 건물을 개발해 1940년 1월부터 약 10개의 건물이 빠르게 세워졌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전체가 나무로 된 건물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철강 구조를 적용해 철재의 사용을 고려했으나 전쟁 상황이 운송을 차단시키게 되자 두 건축가는 창의력을 발휘한다. 그르노를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만을 사용해 전체가 나무로 된 임시로 머무는 곳이지만 편안한 양질의 숙박 시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극한 조건에 대한 적응이 오히려 둘에게 미학적으로 만족스럽고 진정성과 현대성을 들어맞는 결과물을 탄생시키게 도운 셈이다. 물론 BCC 하우스의 내부는 페리앙이 맡는다.

1940년 일본으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페리앙은 가구 시리즈 출시를 포함해 여러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2년 동안 일본에서 고문으로 일한 경험과 인도차이나에서 연구 및 생산 작업을 통해 피에르 잔느레와 함께 미니멀하면서 단순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능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및 생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끝에 B.C.C.는 '집을 위한 장비- 샬롯 페리앙과 피에르 잔느레의 가구 *Equipement de la Maison*' – Meubles de Charlotte Perriand et Pierre Jeanneret'라는 이름을 건 첫 번째 에디션을 생산한다.



전시 전경 © Laffanour Galerie Downtown

전부 나무로 제작된 이 에디션에는 식탁, 의자, 커피 테이블부터 책상, 수납장, 책장에 이르기까지 인테리어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에디션에는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사용했고 책상과 같은 일부 가구에만 알루미늄 서랍이나 찬장이 포함되었다. 그런 다음 1949년경에 물푸레나무를 사용해 두 번째 에디션을 출시했다. 둘의 협업은 자연스러운 듯했으나 당시 가구 제작 계약서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건축가였던 피에르 잔느레와 데코레이터였던 살롯 페리앙은 각자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기를 바랐다는 점이다. 그렇게 따로 활동할 수 있다는 항목을 만들어놓고 살롯 페리앙은 따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인테리어 장비들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이 시기 둘에 의해 만들어진 가구들은 당시 프랑스 전역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파리의 국제 주택 전시회[Exposition Internationale de l' Habitation]에 전시된다.





1949년 페리앙과 잔느레의 협력은 끝이 났고 잔느레는 이미 르 코르뷔지에와 함께 인도의 편자브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찬디가르Chandigarh로 가는 일에 들떠 있었다. 그리고 전후 상황으로 인해 B.C.C는 1952년에 안타깝게 중단되고 브랑송은 같은 해 B.C.BBureau de Coordination du bâtiment를 만들어 1960년대까지 판을 이어받는다. 페리앙, 잔느레, 프루베 이름으로 만들어진 전설적인 가구들은 스템프 시몽 갤러리Steph Simon Gallery에 의해 유통되다가 1974년에 갤러리가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2007년 라파누 갤러리 다운타운이 스템프 시몽 갤러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